

AVENUE L

이달의 스타일 매거진 **AVENUE L** SEPTEMBER 2010

MILITARY
SERVICE



MILITARY
SERVICE

Lounge Special

Orange Beginning

디자이너 브랜드의 열정이 손쉬운 브랜드의 제품 품질, 감각으로 가득 찬 여행을 선사하는 브랜드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우리를 색의 우주로 초대한다.

Photographed by SERGE ANTON





파리에 상젤리제가 있다면 뉴욕에는 5번가 바르셀로나에는 링블라스가 있다. 그렇다면 브뤼셀에는? 바로 루이스 거리가 있다. 밤나무로 둘러싸인 우아한 저택과 모던한 비즈니스 타워를 배경으로 온갖 종류의 국제 브랜드가 뒤섞인 루이스 거리. 펜톤 호텔은 바로 이 역동적인 도시의 중심부에 자리 잡았다. 펜톤 호텔은 디자이너 펜톤의 스타일을 '색'으로 해석한 곳. 전 세계 색 산업의 리더로 색에 대한 창의적인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하는 '펜톤 LLC'가 참여해 색다른 색의 세계를 꾸며놓았다. 이곳의 핵심 요소는 이른바 '펜톤 칩'이라고 불리는 컬러 칩. 호텔의 각 층과 60여 개의 객실, 침실과 욕실은 이 컬러 칩으로 분해되어 공간을 지날 때마다, 층을 오를 때마다, 객실을 오갈 때마다 색의 스펙트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펜톤 호텔의 외관은 70년대의 수수한 건축 양식이 돋보인다. 하지만 유리창마다 레드, 블루, 그린, 옐로, 오렌지, 바이올렛, 브라운 등 컬러 필름이 붙어 있어 한눈에도 색에 대한 감각을 한기시킨다. 사실이 건물이 펜톤 호텔로 탈바꿈한 것은 건축가 미셸 페너멘(Michel Penneman)이 8년 전 구입한 오픈 자색 '펜톤 백' 덕분이다. 그가 생가 발달한 오픈자색 백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펜톤 컬러'를 활용한 컨셉트 호텔을 떠올린 것. 그리고 이 같은 '펜톤 스타일'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인테리어 디자이너 올리비에 아너트(Olivier Hannaert)와 함께 실행에 옮겼다. 펜톤 호텔에서 흰색은 캔버스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 이 캔버스에 펜톤 칩의 다양한 컬러를 입혀 단정하면서도 모던한 회화를 완성하는 식. 외관의 유리창에 붙은 컬러 필름 사이사이 자리한 외벽부터 로비 객실의 주요 배경 색으로 사용된 것까지 흰색은 펜톤 컬러들을 효과적으로 보이게 하는 요소다. 로비는 구름 모양으로 형상화된 흰색 천장이 검은 어둠스틱 패널과 함께 어우러져 60년대 디자이너 아르네 야콥슨이 폴센사를 위해 디자인한 원형 천등을 더욱 돋보이게 하며 수직으로 뻗은 컬러 파티션과 픽셀 단위로 디자인한 컬러 소파 플로레스, 난노마르퀴나의 카펫이 컬러 픽셀의 세계로 들어가는 훌륭한 입구가 된다.

↑ ↓ ↕

↑ 1.1 층마다 통일감 있는 컬러 벽지로 색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펜톤 호텔의 객실. ↓ 컬러의 기운이 온 몸을 감싸고 있는 다양한 바그린.



↑ 1.1 층마다 컬러 필름을 붙여 수수하면서도 개성 있는 한층 호텔이 되었다.





팬톤 호텔의 객실은 스위트룸을 포함한 60여 개, 각 객실의 번호는 문에 붙음새김되어 있는데, 이는 해당 층의 색과도 연결된다. 인상적인 것은 검은색 방음 카펫이 깔린 바닥과 컬러 필름을 입힌 창문, 흰색 바탕에 포인트 역할을 하는 장식물 등 다양한 컬러의 조화와 한눈에 그 조화를 짐작할 수 있는 수평적인 시야다. 특히 침대머리 위에 가로로 걸린 사진 작품들은 층과 객실로 이어지는 색의 연상 작용에서 정경에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뱃지예의 사진작가 빅터 레비(Victor Levy)가 선택한 것들로 반드시 브뤼셀 출신의 사진작가, 브뤼셀을 찍은 추상적인 작품으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또한 객실의 침대 옆에 놓인 작은 사이드 테이블은 물론 브뤼셀 시내가 펼쳐진 테라스의 테이블과 의자 위에 걸린 투명한 원형 오브제 안에는 컬러풀한 머그잔과 물병 등이 놓여 있으며 욕실 역시 흰색을 기본 색조로 팬톤의 제품이 생기를 더한다.

팬톤 호텔은 비즈니스맨을 위한 각종 회의실과 이벤트를 장소로 활용하기에도 안성맞춤이다. 호텔 맨 위층에는 비공개 행사 등을 열 수 있는 두 개의 맞춤형 회의실이 있는데, 20인까지 수용할 수 있는 이곳에는 최신 시청각 및 기술 장비가 갖추어져 각종 세미나와 회의실로 사용하기에 좋다. 또한 자체 바를 갖추고 있는 8층의 테라스는 360도로 브뤼셀의 야경을 관찰할 수 있는 곳. 100여 명에 가까운 손님들을 초대할 수 있으며 칵테일 파티 같은 이벤트를 열기에 적합하다. 이 밖에도 팬톤 호텔은 팬톤 컬러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컨설턴트들이 있어 예약만 한다면 색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색심리학이며 유행 컬러에 관한 교육이나 세미나를 열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영국의 제품 개발 업체들과 라이선스 제휴를 맺어 다양한 디자인 제품 라인을 개발했는데, 더블유 2(W2)가 제작한 팬톤 링에서 영감을 받은 머그잔부터 소니아 스펜서(Sonia Spencer)의 컵스 단추, 이라문구의 문구류와 가방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팬톤 유니버스(Pantone Universe)' 제품들을 선별해놓았으며, 이 제품들은 모두 호텔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다. **▲** 에디터 가낙경

상하문

▲ 브뤼셀 시내의 전당이 시뮬라게 펼쳐진 객실 테라스. 원형 오브제 안에는 팬톤 컬러를 활용한 제품들이 눈에 띈다. **▲** 뱃지예의 사진작가 빅터 레비(Victor Levy)가 선택한 사진 작품은 모두 브뤼셀을 배경으로 찍은 브뤼셀 작가들의 추상적인 작품이다.



↑ 후 욕실의 기본 색조는 역시 화이트 컬러. 리본 시릿 등등만 컬러 요인으로 사용했다.



본인 홈페이지에 수시로
본인 컬러 파인딩 센터의
최종 견본, 감각적인 컬러채우
소리가 인상 깊다



PANTONE

PANTONE